

## 아특별법개정안·한전공대법 1월 국회 처리 물건너갔다

오늘 본회의 처리법안에서 빠져  
문화전당 예산 집행에 차질  
한전공대 개교 준비도 어려워져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별)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의 국회 통과를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별 개정안과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전공대 법안은 시기를 다루는 법률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아특별과 한전공대 법안은 나란히 8일 본회의 의사일정 처리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8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률안 등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별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특별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해 중대재해법 등 현안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한전공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아특별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전부 위탁'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안이 발이 묶이면서 일 반사업비 등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 반사업비 등 전부위탁 후 집행할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당 내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곤란해지고, 보조금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 2021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679억원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애초 계획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 때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 했다. 아특별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공대 법안이 늦어지면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 준비에도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에서 한전공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새해는 통합의 해, 마음의 통합 중요”



“코로나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회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靑 신년 인사회서 강조 … “코로나 반드시 극복”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회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술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주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론’보다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해는 회복의 해”라며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2면

복스 - '그림 속에 숨겨진...' '음식철학' ▶14-15면

KIA 이창진의 '뜨거운 겨울' ▶18면

## 오늘, 더 춥고 눈 더 내린다

장성 등 내륙 영하 20도 육박  
폭설에 육·해·공 교통 마비

8일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하늘-바닷길과 산간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출퇴근길 사·도민 불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번 추위는 금요일과 토요일인 8-9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장성과 담양 등 내륙지역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광주도 영하 10도 아래로 한두박질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휴일인 10일까지 사흘간 곳에 따라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와 한파-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는 일요일인 10일까지 강추위 속에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7일 예보했다. 8일부터 10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신안 등 전남 서해안의 경우 20cm 이상으로 예보됐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은 5-15cm,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은 3-8cm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 영하 9.2(운암동)도, 화순-영광 10.7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8일은 수은주가 더 떨어진다.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곳은 장성으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으로 담양 영하 18도, 영광-곡성 영하 16도, 나주 영하 15도를 보이겠으며, 광주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다. 낮 기온도 영하 1도(진도)부터 영하 7도(장성-영광)의 분포가 예상돼 종일 춥겠다.

주말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영하 13도, 담양 영하 18도, 장성 영하 17도, 곡성 영하 14도, 목포 영

하 10도, 진도 영하 7도 등으로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광주기상청은 9일 낮까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0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20년 전인 2001년 1월 15일 아침 최저기온인 영하 12.5도(광주 운암동)를 가깝게 제치는 기록적인 한파로 평가될 전망이다. 지난해 겨울 광주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 불과했다.

한편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로 8일 광주와 여수공항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으며, 진도 쓸비치 진입도로 1km 구간, 지리산(성삼재) 도로 16km 구간, 진도 의신 침찰산-고군 항동 1.5km 구간 등 산간도로가 통제됐다. 진도 쓸비치 진입도로의 경우 대설 특보 해제 시까지 도로가 통제되며, 나머지 2개 구간은 3월 14일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전남 바다 전 항로(55항로 85척)도 통제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평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원대로 603(남구 205호)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당로대로 520(수완동)

장비 표준 옵션 및 등급 E 220 4 A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변속,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변속, 복합연비:13.2도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변속,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변속, 복합연비:10.2도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